

생성시형론의 재검토

——Halle-Keyser시형론을 중심으로——

李 東 國

문법(grammar)에 의해서 문장의 문법성(grammaticality)이 결정되듯이 시에 있어서도 시의 규칙이 있어 시행의 운율성(metricality)을 판별해 준다. 최근 10여년간 시의 기본시형을 구분하여 각 行의 위치(position)(혹은 음보(foot))와 음절간의 가능한 결합을 기술하려는 시형론자들의 노력은 이 운율규칙(metrical rule)의 발견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정상형(norm)에 단순히 허용이탈형(allowable deviations)의 목록을 첨가한 전통 이론이나 시의 낭독(performance)에 근거를 둔 구조주의 시형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에게 전자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는 ad hoc한 목록의 나열로 보였고 후자는 낭독에 내재하는 시행의 추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시형론이었다. 특히 구조주의 시형론에서는 아래의 (1)뿐만 아니라 (2)까지 'legitimate shifting of the accent for the sake of the meter'에 의해 올바른 시행(正行)으로 만들어 버리므로 운율규칙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 (1) Much have I travelled in the realms of gold
- (2) a.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mer
b. *Ode to the West Wind by Percy Bysshe Shelly¹⁾

이에 반해 그들의 생성시형론(generative metrics)은 시의 기저형인 추상운율형(abstract metrical pattern)으로부터 표면형인 수 많은 운율적인 시행(metrical line)을 운율규칙의 적용에 의해서 얻게 한다.²⁾ 이 운율규칙은 正行과 非行의 구별은 물론 (2)와 같은 비운율적인 시행들의 생성을 막아 준다. 시어와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어는 일반언어원칙(linguistic givens)을 임의로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³⁾, 시인은 그의 언어규칙이 부여한 강세형을 마음대로 바꿀수 없으며 그 강세형에 준해 추상운율형을 만족시키는 시어들을 가려서 쓴다는 것이 이 시형론의 전제이다.⁴⁾

-
- 1) *는 비운율적인 시행임을 나타낸다.
 - 2) Jakobson(1960, 364)은 추상운율형을 verse design, 표면형을 verse instance라고 부른다. 그의 verse design에 의해 verse instance의 invariant features를 결정하고 variation의 한계를 정해 주는 일은 운율규칙의 작용에 해당한다.
 - 3) 시어와 일반언어의 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는 Ten Brink같은 구조주의자들의 시인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강세 규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4) 생성시형론은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운율성은 문법성과 대치되는 말이며 문법성을 결정하는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있으면 운율성을 다루는 시어 능력(poetic competence)도 있게 된다. 언어능력은 모든 인간이 보유하지만 시어능력은 시인과 시의 규칙을 아는 'attuned reader'가 가지게 된다. Unspoken infinite number of grammatical sentence에는 협존하는 시행의 전부(the corpus of lines of existing poetry)가 해당되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생성시형론들을 고찰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여서 그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론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후의 인용문에서 저자가 셰익스피어인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

I. 주요 생성시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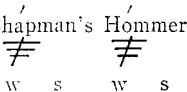
영시를 다룬 생성시형론에는 크게 나누어 3개의 주요한 학설이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한다. 이들 세이론은 Chaucer 이후 영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시형인 弱·强五音步格(the iambic pentameter; 이후로는 IP라 약함)을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1. Halle-Keyser⁵⁾의 최고강세원칙(stress maximum principle)

H-K(1966)는 운율을 생성시형론적 입장에서 다룬 최초의 논문이다. Chaucer의 IP시행을 자료로 분석한 이 글은 그후 일부 수정되어 H-K(1971)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위의 두 논문에 나타난 H-K시형론의 핵심은 최고강세원칙(이후로는 SM원칙이라 약함)이다. 이것은 Jespersen의 상대적 강세(relative stress)의 원리에 입각하여⁶⁾ 시행내의 한 음절의 운율적 가치는 앞뒤의 음절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여, 동일구문단위(same syntactic constituent) 안의 3단위 환경에서 주위음절보다 강세가 높은 최고강세점(stress maximum=SM)은 기저추상운율형의 S위치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이 부분이 Jakobson의 invariant feature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의 유무가 한 시행의 운율성을 결정해 준다.

a) SM원칙에 의해 앞서의 가상행

(3) (=2a)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의 비운율성이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

SM원칙의 또 하나의 장점은 첫음보의 전위(initial inversion)가 iamb 시행에서는 자연스러우나 trochee 시행에서는 드물다는 Jespersen의 관찰(§3)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行頭전위음보의 강세음절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SM이 성립되지 않지만 후자는 뒤에 약음절이 따라 나올 경우 W위치에 SM이 생겨 SM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⁸⁾

(4) a. Life is/ but an empty dream (Longfellow, A psalm of life)

5) 이후로는 H-K라 약함.

6) H-K와 Jespersen의 상대적 강세에 대한 견해는 같으나 엄밀히 말하면 Jespersen은 2단위 환경(binary comparison)에 의해 앞이면 앞, 뒤면 뒤의 음절하고만 비교한 것이고 H-K는 3단위 환경(ternary comparison by both its right and left context)에서 비교한 것이라고 한다.

7) IP행의 기본시형인 추상운율형은 초과음절을 고려하지 않을 때 WSWSWSWS로 설정된다. 여기서 음절은 표면형(line)의 단위이고 S, W의 각 위치(meterical position)는 기저형(meter)의 단위이다. H-K는 운율규칙을 대응규칙(correspondence rule)이라고 부른다.

8) Beaver (1968 b)는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the SMP is its spectacular explanation of inverted initial foot in iambic verse'라고 했다.

- b. A Life's/ ≠ but am empty dream

이처럼 H-K의 시형론은 전통적인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뒤에서 밝혀지듯이 SM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반례(counterexamples)가 나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반감되고 말았다.

§2. Magnuson과 Ryder⁹⁾의 시형론

1970년 M-R은 시형에서 단어의 구조(word structure)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들(1970, 796)은 SM원칙이 음절의 3위치의 연속(sequence of three positions)만을 운동 함으로써 언어와 시형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흐려놓았다고 한다(the SMP fundamentally mis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r and language). 그대신 그들은 2위치의 연속인 SW의 위치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몇 개의 운율규칙을 만들었다. 더구나 M-R은 한 음절의 운율적 가치는 언어내적으로 정해지는 강세의 상태성 뿐만 아니라 단어 그 자체에 내재 하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속한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에 의해서 정해지는 4개의 언어적 자질(feature)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 4개의 자질은 [±ST], [±WK], [±WO], [±PS]이며¹⁰⁾, 예상모형(Expectation Matrix) (5)가 이 자질들이 완전한 운율성(absolute metricality)을 가져다 주는 위치를 표시해 준다.

(5)	w	s
WO	-	+
WK	+	-
ST	-	+
PS	+	-

+ = affirming
- = non-affirming

M-R은 모든 시행은 일단(5)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므로 비운율적이며 기본규칙(Base rules)이 'non-affirming'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여 준다고 한다.¹¹⁾ 이 규칙의 하나인

$$(6) [F] \rightarrow [+WK]/[+WK] \underline{\hspace{1cm}}$$

은 S위치에 [+WK]의 자질을 가진 음절이 오면 (5)에는 어긋나지만 다음 위치(즉 W위치)에 '+'인 [+WK]의 음절이 오면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M-R의 시형론은 한 위치의 비운율성을 다음의 정상적인 위치가 회복시켜 준다는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에 기초를 둔 이론이지만 이 역시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그들의 기본규칙들은 그들이 분석한 쏘네트의 14행에만 적용되므로 자료가 바뀌면 달

9) 이후로는 M-R로 약칭함.

10) 각 자질들의 주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절이 날말 강세를 받거나 多음절어의 강세 음절이면 [+Strong=ST]이며 한 단어의 첫 음절이면 [+Word Onset=WO]이다. 한 단어 안에서 강세음 절 앞에 오는 음절은 [+Pre-Strong=PS]이고 [+Weak=WK]는 독일어의 어미의 운율적 역할에 준해 만들어진 것으로 날말강세가 아닌 것은 모두 [+WK]이다. 예를 들어 many의 첫음절은 [+ST]과 [+WK]의 자질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11) M-R은 비행을 unmetrical하다고 하지 않고 'non-occurring string'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져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 ‘data-orientedness’이외에도 그들의 이론에는 운율적 중요성이 인정된 구문경계선이나 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Kiparsky(1975, 579)는 그들의 운율규칙들은 일반적이지 못하여 설명력이 없으며(their metrical rules remain ad-hoc and do not lead to any explanations), 규칙속에 음운론적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음운론과 시형론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fail to draw the right distinction between phonology and metrics) 따라서 운율의 추상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¹²⁾

§3. Kiparky의 시형론

위에서 살핀 두 학설의 문제점이 밝혀지자 Kiparsky는 그들의 결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Kiparsky(1975)에서 이전 이론¹³⁾의 단점이 시행의 운율성을 강세형으로만 결정하고 영시에서 운율적으로 더 중요한 제약이 따르는 낱말과甸의 구조를 무시한 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기의 운율규칙 MR1과 MR2를 제시했다.

(7) MR 1: [1 stress]→[α stress]

MR 2: [4 stress]→[β stress]/ { # _____ # (a)
p[#] _____ (b)

여기서 α 와 β 는 ‘variable’으로서 1강세에서 4강세까지를 의미한다.

MR1은 S위치에는 어느 강세의 음절이 오더라도 운율적이라는 규칙이다. 그런데 그의 이론의 중심은 MR2에 있다. 이 규칙은 W위치에 강세음절이 올 경우, 앞에 구문경계선 p[가 존재하지 않는 한(MR2b) 일음절어만 허용된다는 것이다(MR2a). 따라서 그의 이론을 일음절어제약(monosyllable constraint=MC)이라고도 부른다.

그의 이론은 Kiparsky(1977)의 수정이론에서 Liberman과 Prince(1977)의 강세이론을 받아들여 나무형(tree notation)을 시형론에 사용하면서 대폭 수정되었지만 MC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¹⁴⁾ 즉 그는 MR2a를 반영하기 위해 lexical stress라는 새로운 말을 쓰고 있다.

(8) In a stress pattern $\overset{\wedge}{MN}$, M and N are *lexical* if they are not separated by any #.¹⁵⁾

이 정의에 의하면 dog나 take 같은 일음절어는 이웃 단어와 #로 분리되기 때문에 lexical stress와 metrical stress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labeling mismatch에서는 제외된다. 그는 이외에도 낱말의 구조와 운율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bracketing mismatch도 운율성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9) $\overset{\wedge}{\begin{array}{cc} w & s \\ \diagup & \diagdown \end{array}} \quad \overset{\wedge}{\begin{array}{cc} s & w \\ \diagup & \diagdown \end{array}} \quad \overset{\wedge}{\begin{array}{cc} s & w \\ \diagup & \diagdown \end{array}}$
The lion dying thrusteth...

12) Beaver (1971a, 184)는 M-R의 주장대로 H-K의 이론이 ‘too accommodating’ 하다면 그들의 것은 ‘totally accommodating’하다고 혹평한다.

13) 여기서는 H-K의 이론을 말함.

14) Kiparsky (1977)의 수정이론에서는 주요구문경계선(major syntactic break)이 포함된 MR 2b에 관한 적절적인 언급이 없다. 이것은 그의 이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 단어경계선 #에 대해서는 Chomsky & Halle (1968, §8.2) 참조.

강세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이론에서 Kiparsky는 영시에서 Donne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인이든지 labeling mismatch와 bracketing mismatch를 동시에 어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 경우는 아래의 운율규칙으로 설명된다고 한다.

(10) There is no matching of the from



- where i) W,S are lexical, and
ii) S command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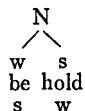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11)



behold 같은 단어는 WS위치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된다.

(12) *(except Donne)



Kiparsky의 이론(수정이론이든 아니든)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일음절어가 비운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H-K의 SM원칙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시행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13) Since I ^le_wt you, mine eye is in my mind (Son. 113)

(14) Shall we ^hear from you, Catesby, ere we sleep? (R3 3.1.188)

상기 시행에서 강세를 받는 left와 hear는 W위치에 오면 SM원칙을 위배하지만 일음절어이기 때문에 운율적이되고 (13), (14)는 정행으로 올바로 판정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시행론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로 영어 전체 어휘수(word stock)의 80%나 차지하는 일음절어에 제약이 약하다는 것은 이상하다. 둘째는 이론적인 모순점으로, 상기(2b)가 SM원칙대신 MR2a를 위배하여 비행이라고 한다면 2음절어인 Percy를 두개의 일음절어로 바꾼다고 해서 운율성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arnes and Esau, p. 217).

(15) Ode to the West Wind by Anne and Bysshe Shelly

이뿐 아니라 하기의 일음절어로만 구성된 비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의 이론에 의문

점을 던져준다(Harvey, p. 68 참조)

(16) *And we in the hill,.....

세째로 MC와 (10)을 모두 어기는 시행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세익스피어의 시에서 입증이 된다는 사실이다.

(17) Would *create* soldiers, make our women fight (Mac. 4.3.187)

(18) Should *outlive* Caesar. We shall find him (JC 2.1.157)

(19) To o'erthrow law and in one self-born hour (WT 4.1.8)

이에 대해 Kiparsky는 상기 예들이 예외적이거나 운율규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세익스피어 초기의 시행들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위의 규칙들이 Sidney, Marlowe, Shakespeare, Spencer의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초기시인인 Wyatt등이 불규칙한 시를 썼다면 더 이전 시대의 Chaucer는 어떤 metrical system을 가지고 규칙적인 시를 썼겠는가? 또한 Donne는 MC나 (10)을 어겼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Donne deserved to be hanged for writing unmetrical verse)고 했었다면 그 말을 한 Ben Jonson 자신의 불규칙한 시행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20) But, viewing him since, alas, too late (On Salathiel Pavv, 19)

(21) And despairs day, but for thy volume's light (ibid, 80)

Kiparsky의 시형론은 시대와 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poet-orientedness의 특징이 있지만 위의 사실들은 그 이론적 근거를 의심하게 한다.

이상 3학설을 살펴본 결과 어떤 이론도 운율성을 정확히 판별해 줄 수 있는 운율규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21)의 예문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ironical 하게도 SM원칙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의 앞으로의 진행은 i) 일음절어에서 제약을 없애는 이론은 틀린 것으로 잔주하고 ii) 운율성의 결정은 3단위 이상의 환경에서의 강세의 비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iii) 시형론은 시인과 시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H-K 시형론의 이론상의 결점을 고쳐 나가고자 한다.¹⁶⁾

II. H-K이론의 수정

§1. 강세음절의 정의

H-K의 학설에 기반을 둔 이론을 전개 하려면 우선 SM원칙과 직결되는 강세음절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에는 다양한 표면강세형이 있는데 반해 영시의 기저운율은 강(S) 아니면 약(W)의 2개 구분뿐이어서 그 중 어떤 강세를 가지고 있는 음절을 시형론에서 다룰지가 중요하다.

16) 물론 각 시인들이 어느 정도의 'metrical idiolect'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그 차 이를 설득력 있게 기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형론에서는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율규칙들의 공통점을 다루어야한다고 생각된다.

H-K는 초기이론(1966)에서 SM을 규정하면서 ‘주위의 음절보다 더 큰 강세를 가진 음절(a stressed syllable that bears a greater linguistically determined stress than the two adjacent syllables)’이라고 하여 중간단계의 강세형까지 인정하는 다수강세형을 주장했다가 불합리성이 발견되자, H-K(1971a)에서는 ‘두개의 약음절 사이에 위치한 강세음절(a fully stressed syllable that occurs between two unstressed syllables (p. 169))’이라고 하여 강세·비강세의 2개 구분만 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어느 정도의 강세를 받는 음절의 옆에 위치한 강세음절은 SM이 될 수 없다는 강세중화(stress neutralization) 현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강세음절(fully stressed syllable)이라 함은 한 낱말에서 주강세(main stress)를 받는 모음을 가진 음절을 지칭하기 때문에 낱말강세(lexical stress)를 받는 중요품사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된다(ibid, p. 145 각주 3 참조). 따라서 이에 속하지 않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등은 전부 약음절로 간주된다.

이 구분때문에 H-K는 아래의 정행들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22) (=13) Since I *left* _w you mine eye is in my mind
- (23) She may *help* _w you to many fair preferments (R3 1.3. 95)
- (24) For how do I *hold* _w thee but thy granting? (Son. 87)

SM원칙은 W위치의 약음절어로 둘러싸인 강세음절을 비운율적이라고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운율적 직관으로는 위의 시행들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S위치의 you, thee가 어느정도의 강세를 가진다고 느껴진다.¹⁷⁾ H-K는 이 단어들에게 강조(emphatic)내지는 대조(contrastive) 강세를 부여하여 강세중화현상으로 설명하려 했다. 이 방법이 설득력이 없었던 까닭은 강조강세등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고로 비행도 이 강세들을 받아 열마든지 정행이 될 수 있어서 너무 ‘expensive’하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강세음절을 품사(lexical category)만으로의 정의가 불충분하게 되자 Chatman(1965, 125)이나 Beaver(1968a, 311-312)는 음절의 강도(syllable weight)로써 분류하게 되었다.

- (25) a. 非弱化 일음절어 完全모음(non reducible full-voweled monosyllabic words) 예 : straight, bright 등.
- b. 약화일음절어 완전모음(reducible full-voweled monosyllabic words) 예 : to, shall, you, it, can 등.
- c. 多음절어의 강세음절(stressed syllables of polysyllabic words)
- d. 多음절어의 비강세완전모음(full-voweled unstressed syllables in polysyllabic words)
- e. 多음절어의 비강세 약화모음(reducible unstressed syllables in polysyllabic words)

이 분류에 따르면 a와 c형이 강세음절로 취급되므로 whenever, moreover, upon, among 등의 多음절 기능어의 사전적 강세(dictionary-assigned stress)까지 강세음절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연언어에서는 多음절어에서 강세가 가장 highlighted되므로 이들이 시형을 맞추는데

17) Harvey (p.71) 참조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Chatman이나 Beaver 역시 (22)~(24)의 일음절대명사는 b형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들의 b형의 기준이 /i/ 정도의 모음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명사 I /ay/도 /i/로 *reducible*한가?

이 글의 주장은 일음절어의 구분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명사나 조동사들은 강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치사나 관사 접속사 등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세를 부여할 수 없다.¹⁸⁾ 다시 말해서 Wimsatt처럼 비중요품사어가 S위치에서는 강세를 받고 W위치에서는 무강세라는 식의 설명은 경솔(frivolous)하지만, 모든 非중요품사어가 같은 강세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다. 기능어의 특성은 환경(context)에 따라 강세의 유동성(a kind of stress flexibility)을 보인다는 점이며 이 강세와 비강세의 양면성을 지닌 일음절 기능어의 시형론에서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다(the stress flexibility makes these words metrically useful (Beaver 1971b, 189))¹⁹⁾

결론적으로 H-K의 결점은 강세음절을 날말강세로만 정의하고 ‘lesser stressed’와 ‘unstressed’를 모두 ‘unstressed’로 취급해 버린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25)의 강세음절의 정의 속에서 일음절대명사들이 b형뿐만 아니라 a형에도 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상황에 따른 강조강세나 대조강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22)~(24)의 행들은 정행으로 판정될 수 있고 H-K의 이론은 이 경우 너무 강(strong)하지 않게 된다.

§2. 휴지(pause)의 정의

SM의 정의에서 그것의 존재범위를 동일구문단위(same syntactic constituent) 안으로 한정한 것은 시형론에서의 휴지(pause or break)의 역할을 감안한 것이다. Jespersen은 휴식후에 들리는 음절의 강세도는 뒤의 음절과 비교해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으며, 휴지로 분리된 앞뒤음절의 강세도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휴지는 시형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됨다고 했다(this leads us to another principle; the effect of pause, §8). 그리고 전통이론에서 말한 IP행의 허용이탈형(allowable deviations)중의 하나인 행두전위음보는 물론 행간전위음보도 대개 휴지다음에 오므로 휴지를 이용하면 전위음보를 단순한 list entry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H-K(1971a, 168)의 이론에서는 이 휴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구둣점(orthographical pause)인 comma, semicolon, colon이나 period로 표시되는 중요구문경계선(major syntactic break)이라고 하였다. SM은 이 경계선의 앞이나 뒤에서는 생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휴지는 임의적이어서 시인에 따라 구둣점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구문단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휴지인 주어와 술어사이에는 구둣점을 찍지 않으므로 시형론에 필요한 진정한 휴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김석산, p. 64 참조).

이 글에서는 영어의 표면구문구조(surface syntactic structure)에 따라 휴지를 정하는 Kiparsky의 전해를 따르고자 한다. Kiparsky(1975, 582)는 영시에서는 구둣점으로 표시되는 필수적 휴지(obligatory intonation break)는 물론이고 句와 句사이의 임의적 휴지(optional

18) 흥미롭게도 H-K는 강세음절을 가질 수 없는 단어에서 대명사는 열거하지 않고 있다.

But clitics such as articles, conjunctions, prepositions, clitic adverbs, and verval auxiliaries do not contain fully stressed vowel (1971a, 145 각주 3).

19) 일음절 대명사 이외에도 부정사(negative), 조동사 등이 있다.

(26) If I dream not, thou are Emilia (C.E.5. 1. 346)

intonation break)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John sat with the old man'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John과 sat, sat과 with 사이에는 일종의 휴지가 있게 된다. (with는 뒤에 휴지가 올 수 없는 후접사(proclitic)이다.)

- (27) $s[NP[John]VP[sat_PP[with_NP[the old man]]]]$

Kiparsky는 문장에서 휴지와 휴지(임의적이든 필수적이든) 사이의 부분을 韻韻句(phono-logical phrase)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SM의 적용범위를 이 음운구내로 한정해 볼 수 있다.

- (28) 정의 : 강세음절이 동일한 음운단위(same phonological constituent)내에서 2개의 약음절 간에 위치했을 때 그 강세음절은 최고 강세점이 된다.

이에 따라 수정전의 이론으로는 비행으로 판정되었던 많은 정행들이 올바르게 판정됨을 발견하게 된다.

- (29) (=14) Shall we *hear* from you, Catesby, ere we sleep?
 (30) When I *come* where he calls, then he is gone(MND 3. 2. 416)
 (31) Suff'ring my friend for my *sake* to approve her (Son. 42)
 (32) His eyes which scornfully *glisters* like fire (Ven. 275)

즉 W위치의 각 강세음절은 앞이나 뒤의 약음절이 같은 음운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SM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 (33) I *come* [where he calls]_s
 my *sake* [to approve her]_{pp}

이 음운구를 이용한 시형론은 몇 가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우선 3단위환경의 강세를 비교함에 있어서 두개의 句로 분리된 환경 예를 들어, 'I come where'가 분석의 최소단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where는 오히려 그 뒤의 말과 더 쉽게 강세의 비교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설이지만 시인의 시작과정을 고려한 것인데, 시인은 먼저 'when I come where he calls'라는 어귀를 생각해 내어 이것을 기저운율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지 낱말 하나 하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적어나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where he calls 운율적 위치를 먼저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SWS의 위치로 정해지면²⁰⁾ when I come의 come은 W로 정해지지만 뒤에는 일종의 휴지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시인의 입장으로는 'disruptive'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음운구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SM원칙의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론의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29) ~ (32)의 시행들은 비행은 아니지만 복잡도지수(metrical complexity)가 큰 시행들이며, 음운구의 길이가 짧을 때는 휴지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20) 이 위치 설정은 뒤의 §4를 참고 하시오.

§3. 최극강세원칙(stress extremum principle)

H-K의 이론에 따른 운율규칙은 시인이 자연언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운율적이 아닌 鐸를 걸러내는 여파기의 구실을 한다. SM원칙은 적절한 비교환경(즉 동일한 음운구)안에서 주위의 약음절에 의해서 강세도가 더욱 상승한 강세음절이 기저형의 약위치에 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서 강세음절에 둘러싸인 약음절도 강위치에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day and night*를 WSW 위치에 오게 하는 것은 시어능력(poetic competence)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운율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Kiparsky가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1975, 596)는 세익스피어의 시행에서 *antique*나 *extréme* 같은 형용사는 단음절 명사를 수반할 때 거의 어김없이 S위치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34) $\begin{matrix} s & w & s \\ \text{extreme} & \text{fear} \end{matrix}$

* $\begin{matrix} w & s & w \\ * \text{extreme} & \text{fear} \end{matrix}$

그는 이것을 현대영어의 1강세어 앞의 3-2강세형을 2-3강세형으로 뒤집는 리듬규칙(Rhythm Rule=RR) (35)이 세익스피어시대에는 이 형용사들에까지 널리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35) [+stress] → [2 stress]/__X[2 stress] Y[1 stress]

where X, Y contain no 1 or 2 stress, and no p[

예 : Tennessee Williams → Tennessee Williams

$\begin{matrix} 3 & 2 & 1 & 2 & 3 & 1 \\ \text{sixteen} & \text{tons} & \longrightarrow & \text{sixteen} & \text{tons} \end{matrix}$

만일 그렇다면 아래의 이태릭체로 된 부분들은 RR의 적용뿐만 아니라 *éxtreme féar*에서 *-treme*과 같은 최저강세점(stress minimum=SN)을 S위치에 못오게 하려는 운율현상의 하나로 풀이될 수 있다.²¹⁾

- (36) a. And *extreme fear* can neither fight nor fly (Luc. 230)
- b. The pangs of *despised love*, the law's delay (Ham. 3. 1. 73)
- c. And from the *forlorn world* his visage hide (Son. 33)
- d. The life of purity, the *supreme fair* (Luc. 780)

따라서 이것을 운율규칙으로 정하면 SM원칙의 조건을 도치(invert)해서 만든듯한 최저강세원칙(stress minimum principle)을 얻게 된다.

(37) 정의 : 약음절이 동일음운구안에서 2개의 강세음절간에 위치했을때 그 약음절은 최저강세점(SN)이 된다.

대응규칙 : 최저강세점은 W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모든 W위치에는 오지 않는다.

21) 여기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Harvey (p.71)는 $\begin{matrix} 2 & 3 & 1 & 2 & 3 & 1 \\ \text{far} & \text{more} & \text{red} & \text{red} & \text{tripped} & \text{buds} \end{matrix}$ 까지도 WSW에는 올 수 없다고 한다.

사실 SN원칙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M-R(1970, 797-798)이었다. 그들은 counterpart 같은 1강세—무강세—2강세이나 overthrow 같은 2강세—무강세—1강세어에는 일종의 SN이 존재하고 그것은 S위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규칙의 하나인

$$(38) [F] \longrightarrow [-ST] / [+ST] \underset{W}{X} __$$

은 W위치에 강세음절이 왔을 때 다음의 W위치에 또 강세음절이 오는 것을 막는 것으로 SN원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SN원칙의 덕분으로 M-R가 열거한 H-K의 이론으로는 정행이었던 비윤율적인 행들이 정상적으로 판정되게 되었다.

- (39) a. *Fly away! fly away! You dangerous thing!*
- b. *Introduced grandfather to amuse friend.*

즉 (39a)는 처음 3환경의 SN이 약위치에 있으므로 운율성에 어긋나고²²⁾ (39b)도 부속강세 (subsidiary stress)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역시 SN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²³⁾ 이뿐만 아니라 SN원칙은 이제까지의 어떤 이론도 제약을 가하지 못했던 행두전위음보 직후의 음보의 형태도 예측할 수 있다. 즉 행두전위음보 다음에는 SN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대부분 iamb음보가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2단위환경을 기본으로 분석을 하는 시형론은 위의 운율성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운율위치와 자연언어와의 관계는 한층 더 분명해져서 동일구문내의 3단위환경에서 극단적으로 강한음절이나 약한음절의 위치는 운율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일반화(generalization)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대칭적이고 결론적인 최극강세원칙(stress extremum principle)을 SM원칙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²⁴⁾

- (41) 정의 : 동일음운구내에서 강세음절이 2개의 약음절간에 위치했을 때 그 강세음절을 최고강세 점이라 하고, 약음절이 2개의 강세음절 사이에 위치했을 때 그 약음절을 최저강세점이라 한다. 최고강세점이나 최저강세점은 최극강세점(SE)이라 한다.

대응규칙 : i) 강세음절은 S위치에 약음절은 W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각각 모든 S와 W위치

22) 그러나 (39a)는 Bernhardt의 이탈형의 전체적 분포에 의거한 분석의 결과와 같이 정행일 수 있다(김석산, p.77). 다른 예를 보라.

(40) *Lies to God, lies to man, every way lies* (Browning) SN 원칙에 대한 이런 의견상의 반례들은 NSR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II § 4. 참조

23) 부속강세가 SM원칙에서 등한시 된 이유는 간혹 강세의 위치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언어의 음운규칙의 일부(part of the phonological rules of the language)임은 분명하므로, 불확실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구문단위안의 부속강세는 고려되어야 한다. consideration,
 ³ ¹

inflammatory 등은 2개의 SM과 1개의 SN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WSWSW에 위치하여야 한다. Kiparsky (1977, 197), Berne and Esau (1978, 220) 등 참조.

24) 여기서는 편의상 기본추상운율형, 초과약음절, synaleopha, dieresis 등은 기술하지 않고 강세와 관련된 대응규칙만을 다룬겠다.

에는 오지 않는다.²⁶⁾

- ii) 최극강세점 중 최고강세점은 S위치에만 최저강세점은 W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각각 모든 S와 W위치에는 오지 않는다.

§4. 핵강세원칙(nuclear stress principle)

지금까지의 운율규칙에서는 주로 날말위주의 강세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시형론은 언어내에서 운율적으로 관련있는(metrically significant) 강세규칙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감안하면 날말강세이외에 복합어강세,甸 및 절강세(NSR)도 시형분석에서 따뜻히 고려되어야 한다²⁶⁾

영시에서 복합어강세규칙이 적용되는 증거로는 IP행에서 midnight처럼 1—3강세형을 가진 2음절 복합어가 WS위치보다는 SW위치에 나타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있고, NSR에 대해서는 일음절어로된 형용사+명사甸(2-1강세)가 SW위치에 SW위치보다 2배이상 많이 배열된다는 조사통계가 있다(Beaver 1971a, 591-94)²⁷⁾

H-K의 1971년이전 이론에서 두 강세규칙의 적용이 무시된 이유는 두 규칙의 적용으로 주위의 음절보다 “greater stress”를 가지게 되어 SM원칙을 위배하는 정행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42) In my school-days when I had lost one shaft (MV. 1. 140)

(43) Alas! a pou^l thyng^x is it, by my faith (Chaucer, c. PARD 524)

그들은 1-강세와 제 2 강세(secondary stress)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복합어나 명사甸가 동일 1-강세(level stress)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세간의 차이가 무시되는 H-K(1971a)에서도 강세·비강세의 이분화를 위해 schóol-dáys나 fóul thýing의 back-to-back강세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빈도수의 차이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논란이 많은 동일강세의 설정은 보류하고, 2, 3강세로도 강세중화는 가능하므로, 복합어규칙과 NSR이 적용된 형태에 운율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럼 NSR의 조금 다른 측면을 연구해 보자.

(44) How many bards gild *the lapses*_w of time (Keats)

상기 IP행은 표면적인 비운율성으로 인해 자주 인용되는 행으로 SE원칙으로도 비행으로 판정된다. 그런데 (44)의 운율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H-K는 고의적인 비행(metrical fun)으로, M-R (1970, 818-819)는 occurring 한행으로, Kiparsky(1975)는 MR 2a를 어겨 비행으로, 그리고 Kiparsky(1977)에서는 labeling과 bracketing mismatch를 동시

25) 여기서 우리는 다시 i) 음보는 약 위치와 강 위치의 순으로 되어 있다. ii) 강세음절은 강위치에만 온다. iii) 약 음절은 약 위치에만 온다’의 초기이론(the strict iambic theory)로 돌아간 듯하다. 수정전의 H-K 이론은 강위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었다.

26) 자연언어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강세가 있지만 영어의 강세 규칙 중 일반적으로 날말강세, 복합어강세 및 NSR만 시형론에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규칙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석산, p.79)

27) Kiparsky (1975)도 적어도甸-level에서는 NSR이 운율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다 (the NSR is metrically relevant in its operation at least at the phrase level).

에 어기지 않으므로 정행으로 판정한다.²⁸⁾ 이런 논란은 (44)의 운율성을 결정하는데는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시행은 Milton과 Hopkins에서 인용된 것이다.

- (45) a. In *the vision* of God. It was a hill (Milton, PL 11.377)
- b. By *the waters* of Life, where'er they sat (ibid, 11.79)
- c. To *the Garden* of Bliss, thy seat prepar'd (ibid, 8.299)
- d.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Hopkins, God's Grandeur)

위의 예들은 모두 이태릭체로 된 부분에서 SE원칙(특히 SM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그 정도는 (44)과 꼭 같다. 그렇다면 이글의 이론이 H-K의 이론에 바탕을 둔 이상, (45)를 모두 ‘possibility of poetic oversight’나 ‘merely lapse’로 돌리기는 어려우므로 SE원칙이 위배될 수도 있는 조건을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그런데 (44)와 (45)를 좀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SE원칙을 어기는 명사구들이 반드시 전치사구로 수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명사구(NP)+전치사구(PP)로 구성된 명사구의 1-강세는 전치사구의 주요 품사어에 있다. 만일 이 1-강세어를 S위치에 오게 하려면 앞의 명사구의 SM은 W위치에 올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VV\acute{V}]_{NP}$ $[V\acute{V}]_{PP}$ 의 명사구가 WSWSW의 위치에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NSR의 운율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

Barnes와 Esau(1978, 219)는 Kiparsky의 MC를 비판하면서 단지

- (46) In its *ageless...*
 $w \quad s \quad w \quad s$

만 보고 이 시행이 비운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하고 한다. 그들은 상기의 행이

- (47) a. *In its *ageless* waves and winds shall I stand
 $w \quad s \quad w \quad s \quad w \quad s \quad w \quad s$
- b. In its *ageless* unfolding waves I stand
 $w \quad s \quad w \quad s \quad w \quad s \quad w \quad s$

로 계속 이어져야 운율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행 전체가 운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to some extent at least, whether or not a point is metrical depends on the remainder of the line). 이 관찰도 NSR의 운율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47b)는 세째 위치에서 SM원칙을 위배했지만 그句의 1-강세어인 waves가 S위치에 와서 정행이 된 것이며 (47a)는 SM과 SN원칙을 모두 위배하면서 1-강세어까지 W위치에 왔으므로 완전한 비행이 되는 것이다.

NSR을 체계적으로 운율규칙에 도입한 사람은 Beaver (1971a, 1971b)였다. 그는 이 linguistic given을 위배하는 시행들을 강세교체규칙(SER)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NSR이 위배된 경우는 (42), (43)에서 보듯이 강세증화가 초래된 경우이다. 이 사실을 반영하면 새운율규칙인 핵강세원칙이 얻어지게 된다.

28)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이론에서 이 시행은 Shakespeare에게는 비행이지만 Milton에게는 정행이다(Ibid., p. 215).

(48) 정의 : 句 또는 문장 level에서 1강세를 핵강세(nuclear stress=NS)라 한다.

대응규칙 : 강세중화되지 않은 핵강세는 S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모든 S위치에는 오지 않는다.

여기서 핵강세는 뒤의 휴지로 인해 강세중화가 되지는 않는다. 이 규칙은 NSR이 운율적 강위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시인은 이 linguistic reality를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NS원칙에 의해서 (44), (45)뿐 아니라

(49) a. Universal $\overset{\Delta}{\text{reproach}}$, far worse to bear (Milton, PL. 6.34)

b. Burned after them to the $\overset{\Delta}{\text{bottomless}}$ pit (Milton, PR. 6.866)

b. I remember a house where all were good (Hopkins, The handsome heart)²⁹⁾

의 운율성도 인정될 수 있고 H-K의 SM원칙이 ‘rule out’하지 못한

(50) a. A little $\overset{\Delta}{\text{conceit?}}$ What a dangerous thing!

b. If it be betrayed, slander doth approve (Kiparsky 1975, 598)

도 NS원칙을 위배하여 비행으로 판정된다.³⁰⁾

그런데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적인 시행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앞서의 ××××의 5음절로 된句는 보통 2번째와 3번째가 2음절위치(synaloepha)가 되어 자연스러운 iamb리듬 (×/×/)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52) Hath put a spirit of youth in everything (Son. 98)

w s w s w s w s w s

(53) The pleasant valley of Hinnom, Tophet thence (Milton, PL. 1.404)

w s w s w s w s w s

(54) Who forthwith from the glittering staff unfurled (ibid, 1.535)

w s w s w s w s w s

따라서 앞서의 (44), (45) 같은 행들이 드문 이유는 NS원칙은 위배하지 않지만 역시 ‘linguistic givens’에서 유래한 SE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시인들이 가능한 한 쓰기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SE와 NS원칙은 위배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 전자는 후자를 어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위배할 수도 있으므로 두 운율규칙 사이의 순위(hierarchy)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29)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NS는 △로 표시하고자 함.

30) NS원칙은 다음과 같은 희귀한 double inversion의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

(51) Cupid laid by his brand and fell asleep (Son. 153)

WS W S W S W S W S

§5. 末위치 강세 (end position stress)

Kiparsky(1975, 578)는 가상해

- (55) For when came poison from so sweet w[']*flowers*?

가 자기의 MR2a를 위배하여 비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수정안으로는 강세중화로 인해 SE나 NS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52)의 비운율성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

Kiparsky가 이 시행을 비운율적이라고 느낀 것은 rhyme이 있는 시에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만 rhyme이 된다(only stress-bearing syllable may rhyme)는 제약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지 시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 (56) Appear in person here in Court. w[']*Silence* (WT. 3.1.10)

- (57) Makes sinnes, else equall, in mere more w[']*heinous* (Donne)

- (58) As ook, firr, birch, asp alder, holm, w[']*popler* (Chaucer)³¹⁾

그런데 이 영시의 마지막 음보에서의 강세의 특수성은 예로부터 학자들의 주목대상이 되어왔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각 S위치에만 강세가 오는 기본 정상형(norm)의 IP시행(WŚ WŚW ŚW ŚW Ś)이 있을 때 앞의 4개의 강세는 운율적으로 중요하지만 마지막의 강세는 앞의 것을 만큼이나 중요하자는 않다고 한다. 다음의 Bridge(1921, p. 39)의 말을 읊미해 보자.

The truth seems to be that its metrical position in a manner exonerates it from requiring any accent... a weak syllable can very well hold its own in this tenth place and the last essential of the verse may be that of the fourth foot.

운율적으로 네번째 음보의 강세까지가 중요하다면 마지막 음보의 강세는 일반언어의 강세와는 다른 차원의 강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Hascall(1969, 863과 1970, 139)은 무강세와 강세어가 rhyme이 되는 사례들 때문에 언어적 강세의 유무에 상관없이 rhyme을 가지고 있는 음절은 강세(full stress)를 받다는 Rhyme rule을 만들기도 했다. 그 규칙은 추상율형의 마지막 S위치에 관계하는 강세규칙이다. 그런데 영시에는 rhyme이 없는 blank verse 들에 있어서도 약음절이 기저형의 최후 강위치에 오면서도 비운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이 운율위치에 의한 강세의 보편화를 위해 다음의 강세규칙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59) 末위치 강세

각 행의 마지막 S위치의 음절은 운율강세를 받는다.

이것으로 Milton이나 Wyatt에서 나타난 의견상의 반례들이 해결될 수 있다.

- (60) a. Beyond all past example and w[']*future* (Milton, PL. 10. 840)

31) H-K는 Hascall 등과는 달리 popler는 Romance 강세규칙의 영향으로 뒤에 강세가 있다고 한다.

b. That nowe are wyld and do not remembre
_w
 And I have leve to goo of her ^goodeness (lines from Wyatt)

각 행의 마지막 약음절 -ture, -bre, -ness들은 (58)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강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강세는 일반언어 규칙을 벗어난 시행의 특수성에서 부여된 것으로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이다.

III. 수정이론의 적용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H-K운율이론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몇 가지 분석 대상을 정하고 Kiparsky의 시형론과의 대조를 통해서 새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겠다.

§1. 후강세 이음절어

둘째 음절에 강세를 받는 이음절어가 SW위치에 오게 되면 Kiparsky의 운율규칙을 어기게 된다. 하기 예시

(61) To ^refuse virtue in thy nakedness(Kiparsky 1975, 596)
_w

의 경우, 구문경계선 (P) 때문에 RR의 적용마저 불가하게 되고 이 시행은 비행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위의 쳐음 네위치가 이중약강음보(double iambs: **//)인 시행은 (I)§3에서 인용된 정행과 비교해서 운율적으로 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62) (=19) To o'erthrow law and in one self-born hour

*Bridge(1921, p. 56)도 이런 음보는 전혀 귀에 그슬리지 않으며(double iambus is pleasant to the ear) 그 이유는 둘째 음보의 iamb형 리듬 때문이라고 한다(by a kind of compensation in it). Kiparsky는 Kiparsky (1977, 202)에서도 유사한 시행인

(63) Shall behold God, and never tast deaths woe (Donne, Holy Sonnet 7)

을 labeling mismatch와 bracketing mismatch를 동시에 여기므로 Donne과 같은 특수한 시인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시행이라고 한다.

이제 주목할 점은 이 문제가 되는 이음절이 직후의 S위치에는 i) 항상 강세음절이 있으며 ii) 그 강세음절은 대부분 어떤句의 NS라는 것이다.

(64) [behold ^ΔGod]VP
_s _w _s

위에서 (i)은 SE원칙과 (ii)는 NS원칙과 각각 관련이 있다. 물론 이 때의 핵강세는 중화될 것이지만 시인이 VV]vVV...]VP의 4강세-2강세-1강세어를 주로 위치시킬 곳은 WSW가 아니라 SWS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시행들이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 역시 단어 고유의 강세형

을 존중하기 위해 VV]_v의 단어 뒤에 관사+명사의 iamb음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one suspect rather that “behold” occurs infrequently in even-odd because it is normally followed by a determiner (Beaver 1971b, 181)). 앞서 Bridge가 말한 iamb리듬이란 -hold와 God간의 강세도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 Kiparsky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이론으로는 이 관계를 포착할 수 없다. 그의 규칙에 의하면 이 이음절들이 SW위치에 오면 다음 위치의 강세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행인 것이다.

§2. 이음절 전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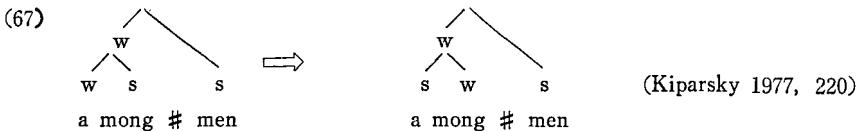
후접사(proclitics)인 among, against, upon, before 등은 중요품사어는 아니지만 언어내적으로 파생된 강세를 가지기 때문에 SE를 만드는데 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뒷음절에 강세를 받는 위의 단어들은 WS에 위치하는 경우가 암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들이 SW의 자리에 오게 되면 Kiparsky의 규칙을 위배하게 된다.

- (65) a. Henceforth be never numbered ^wamong' men (MND 3. 2. 67)
- b. Words ^wbefore' blows: it is so, countrymen (JC 5. 1. 27)
- c. And I will comment ^wupon' that offense (Son. 89)

Kiparsky는 이들의 설명을 위해 처음에는 자기의 음형조정규칙(prosodic rule)

- (66) 동일구문단위에서는 1강세만을 인정한다 (1975, 597)

으로 이 전치사들의 강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해서 그의 MC를 accommodate하려 했다가 (66)의 설정의 불합리성이 발견되자³²⁾ 이번에는 전혀 다른 RR의 입장으로 설명했다.



이 이론은 S앞에 #한개가 있는 후접사의 무강세음절에만 RR이 예외적으로(marginally) 확대적용되는 것이 이상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65c)의 설명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 Beaver (1971b, 189)는 그가 고안한 句강세교체규칙(Phrase Alternating Stress Rule)

- (68) $V \rightarrow [+stress]/... \underline{\quad} \widehat{syl} \widehat{V} ...]_{PU}$

에 의해 amóng mén을 ámong mén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일반언어의 규칙이 아니고 시에서만 임의로 적용되는 가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 문제도 NS원칙을 이용하면 간단히 설명이 된다. 즉 강세는 이동할 필요가 없이, NS

32) Kiparsky (1977, 193)과 Barnes and Esau (1978, 220-221)등 참조,

인 men, blows, -fense를 S위치에 두기 위해 단어 고유의 일반언어 강세가 일부 무시된 현상이 (65)의 경우라고 해석하면 된다.

- (69) comment [upon that offense]_{PP}
 s w s w s

일반적으로 다음절 기능어의 강세가 시행에서 unstable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NS원칙의 영향권내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복합어

1-3강세형인 midnight나 blackbird 같은 2음절 복합어는 SW와 WS위치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70) And art made tongue-tied by authority (Son. 66)
 s w

- (71) As the death-bed whereon it must expire (Son. 73)
 w s

Kiparsky (1975, 587-8)는 H-K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복합어의 두번째 요소의 3-강세를 무강세로 간주하면 (71)는 SM원칙을 위배하게 되고 이 복합어의 강세를 동일강세로 규정하면 하기

- (72) Quite overcanopied with luscious woodbine (MND 2.2.251)
 w s w s w ws s w s

- (73) Take heed of perjury, thou art on thy deathbed (Oth. 5.2.51)
 w s w s w s s w w s

의 초과약음절을 설명하지 못하는 dilemma에 빠진다고 했다. 그러나 수정된 H-K이론에서 복합어의 3-강세를 그대로 표면형에 표시하므로(예 : déath béd)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SW위치의 선호도를 알려줄 수 있으며 (72)와 (73)의 초과약음절은 1-강세가 아니라는 설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housekeeping, quicksilver 등의 후요소가 2음절어인 3음절 복합어의 경우 Kiparsky와 H-K의 설명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H-K식의 해석으로는 이복합어들은 1-3-4강세형을 가지므로 SWS와 WSW에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전자가 더 빈도수가 높다고 예측하는 반면에, Kiparsky는 MR2a(또는 labeling mismatch)에 의해 WSW 위치에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아래의 예들은 Kiparsky의 해석을 지지해 준다.

- (74) a. Love-lacking vestals and self-loving nuns (Ven. 752)
- b. The hot scent-snuffing hounds are driven to doubt (Ven. 692)
- c. And sometime where earth-delving conies keep (Ven. 687)
- d. And his love-kindling fire did quickly steep (Son. 153)

계속해서 Kiparsky는 다음의 시행들은 셰익스피어 초기의 희곡작품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한다.

- (75) a. Which now, two tender *playfellows* for dust (R3. 4. 4. 385)
 b. Full of *rose water* and bestrewed with flowers (TS Ind. 1. 56)
 c. A knot you are of damned *bloodsuckers* (R3 3. 3. 6)

그러나 그의 분석의 결점은 (74)와 (75)간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보다시피 (74)의 시행들은 (75)와는 달리 문제의 3음절어가 복합형용사로서 뒤의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의 명사는 명사句의 강세음절이 주위에 없는 1-강세어인 셈이고 이 NS는 반드시 S위치에 와야한다. 복합어가 명사인 (74)의 경우는 1-강세가 첫 음절에 있으므로 SWS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다.

(76) *love lacking vestals*

$$\begin{array}{ccccc} & \overset{\Delta}{'} & & & \\ w & s & w & s & \end{array}$$

§4. iamb와 trochee

H-K의 이론이 공격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SM의 유무만을 시행의 구분에 참작하면 하기 시행처럼 SM(=SE)이 하나도 없는 시행은 iamb인지 trochee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 (77) Batter my heart, three-personed God, for you (Danne, Holly Sonnet 14)

그러나 수정이론에서는 많은 경우 NS원칙이 구분의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77)에서는 NS인 heart와 God가 S위치에 있는 것이 iamb시행이라는 증거가 된다. Beaver(1971b, 188-189)는 Marlow의 iamb행 (78a)를 (79b)의 trochee행으로 변형시켰는데 여기서도 NS의 위치변동을 눈여겨 볼 수 있다.

(78) a. Was this the *face* that launched a thousand ship

$$\begin{array}{ccccccccc} & & \overset{\Delta}{'} & & & & & & \\ w & s & w & s & w & s & w & s & \end{array}$$

 b. Was this *face* the one that launched the dinghy

$$\begin{array}{ccccccccc} & & \overset{\Delta}{'} & & & & & & \\ s & w & s & w & s & w & s & w & \end{array}$$

마지막 위치의 NS는 말위치강세와 관련된 시행의 특수성때문에 구분의 결정적 증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하기의 예에서는 SN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 (79) Rocks, caves, lakes, fens, bog , *dens and shades* of death (Milton)

$$\begin{array}{c} \overset{\Delta}{'} \quad \overset{\Delta}{'} \\ \text{SN} \end{array}$$

수정이론의 강점은 새 운율규칙들의 다원적 기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II. 나머지 문제점들과 맷음말

이 글에서 제시된 수정이론의 핵심은 최저강세점과 핵강세점에 관한 새로운 운율규칙이다. 이들이 추가된 H-K의 이론은 예전의 결점들을 거의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율규칙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80) *Told by/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Mac.5. 5 27)

(81) *Tyrants/themselves wept when it was reported* (R3 1.3. 185)

상기 시행들은 행두전위음보가 포함된 IP행이다. 이 IP시행에 이질음보인 trochee음보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첫음절의 강세가 SM이 되지 못하는 까닭도 있지만 세번째 위치가 강세음절이 아닌 SN원칙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음운句의 정의상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원칙의 설명력의 약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자료의 조사에 따르면 행두전위음보가 있는 IP행의 둘째음보는 iamb이외에는 비강세음보(pyrrhic)도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시형과 언어와의 관계를 지배하는 운율규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IP행의 전반부에 그것의 기본리듬이 하나도 없거나 강약리듬만 있으면 trochee시행으로 오인된다는 것을 의식한 시인의 배려인 것이다.

같은 이야기로 하기 가상행의 거부감도 여기서의 운율규칙은 위배하지 않고 있지만 IP형의 기본성격을 망각하고 있다는 테서 느껴질 수 있다.

(82) *Inbetweeen, before, beneath and beyond (Kiparsky 1975, 597)
 w s w s w s w s w s

즉 아무리 휴지가 강세중화를 초대한다지만 IP행에 세개의 trochee음보가 먼저오도록 단어를 고르는 시인은 없을 것이다.³³⁾

마찬가지로 iamb시행에 행두전위음보가 혼한 반면 trochee 시행에서 行尾전위음보가 드문 이유를 묻는 M-R(1970, 799)의 질문은 마지막 위치에서 기저리듬에 어긋나면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시행의 끝으로 갈수록 긴장(tension)을 줄이려는 종료원칙(principle of closure)의 현상이라고 답해야 한다. trochee와 iamb 시행은 기저형으로는 mirror image이지만 구체적인 표면형에서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게 된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종래의 segmental한 분석방법에 의존했지만 최근 이론을 이용한 더 나은 분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Barnes, Mervin, and Helmut Esau. 1978. "English prosody reconsidered," *Language and Style* 11. 212-222.
- Beaver, Joseph C. 1968a. "A grammar of prosody," *College English* 29. 310-321.
- _____. 1968b. "Progress and problems in generative metrics," *Papers from the 4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146-155.
- _____. 1971a. "The rules of stress in English verse," *Language* 47. 586-614.

33) Wimsatt (1971, 780)의 "destroyed"될 예인

(83) Twenty bookes clad in blak and a 도 운율규칙으로 제거하기는 곤란하므로 syntactic, rhetorical and semantic consideration에 의존해야 한다(Hascall 1969, 364 참조)

- Beaver, Joseph C. 1971b. "Current metrical issues," *College English* 33. 177-197.
- Bridges, Robert. 1921. *Milton's Prosody*. Oxford: Clarendon Press.
- Chatman, Seymour. 1965. *A Theory of Meter*. The Hague: Mouton.
- _____, and Samuel R. Levin, eds. 1967. *Essays on the Language of Literature*. Boston: Houghton Mifflin.
-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Freeman, Donald C., ed. 1970. *Linguistics and Literary Styl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_____. 1972. "Current trends in metrics," in B. Kachru and H. Stahlke (eds.), *Current Trends in Stylistics*. Champagne, III: Linguistic Research. pp.67-81.
- Halle, Morris. 1970. "On meter and prosody," in M. Bierwisch and K. R.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pp.64-80.
- _____, and Samuel J. Keyser. 1966. "Chaucer and the study of prosody," *College English* 28. 187-219.
- _____, _____. 1971a. *English Stress: its form, its growth, and its role in verse*.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_____. 1971b. "Illustration and defense of a theory of the iambic pentameter," *College English* 33. 154-176.
- Harvey, Marshall. 1980. "A reconciliation of two current approaches to metrics," *Language and Style* 13. 64-76.
- Hascall, Dudley L. 1969. "Some contributions to the Halle-Keyser theory of prosody," *College English* 30. 357-365.
- _____. 1970. "The prosody of John Lydgate," *Language and Style* 3. 122-146.
- Jakobson, Roman. 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 (ed.) (1960), pp.350-377.
- Jespersen, Otto, 1933 (1900) "Notes on meter," reprinted in Chatman and Levin (1967), pp.71-89.
- Keyser, Samuel J. 1969. "The linguistic basis of English prosody," in D.A. Reibel and S.A. Schane (eds.), *Modern Studies in English*, pp.379-394.
- Kiparsky, Paul. 1975. "Stress, syntax, and meter," *Language* 51. 576-616.
- _____. 1977. "The rhythmic structure of English verse," *Linguistic Inquiry* 8. 189-247.
- Levin, Samuel R. 1973. "A revision of the Halle-Keyser metrical theory," *Language* 49. 606-611.
- Liberman, Mark, and Alan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249-346.
- Magnuson, Karl, and Frank G. Ryder. 1970. "The study of English prosody: an alternative proposal," *College English* 31. 789-820.

- Magnuson, Karl, and Frank G. Ryder. 1971. "Second thoughts on English prosody," *College English* 33. 198-216.
- Sebeok, Thomas A.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Wimsatt, W. K. 197. "The rule and the norm: Halle-and Keyser on Chaucer's meter." *College English* 31. 774-788.
- _____. and M.C. Beardsley 1960. "The concept of meter: an exercise in abstraction," in Thomas A. Sebeok (ed.) (1960), pp. 193-196.
- 김석산, 1980, "Jespersen과 생성시형론," 「영학논집」 No 5, 44-90.
- 전상범, 1982, "생성운율론," 「현대영어학연구」, 신아사, 76-120.
- 전종일, 1981, 「영시의 Iambic meter의 생성시형론적 분석—G.M. Hopkins의 "The Windhover"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